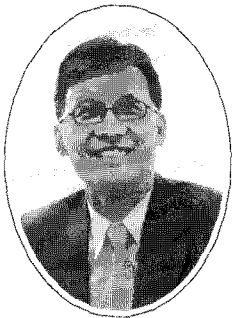




(주)우리기술

원전 계측제어 설비 국산화의 선두

WORORI 우리기술



노선봉 사장

- 설립 : 1993년 3월 1일
- 대표자 : 노선봉
- 주요 생산 품목 : 원전 제어계측 시스템
- 주요 거래처 :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주) 등
- 연구/기술직 종사자 수 : 35명
- 매출액(2009년도) : 약 17,493백만원
- 주소 / 연락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3 우리기술빌딩 4층
T. 02-2102-5100
F. 02-2102-5111

(주)우리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외산 일색인 감시, 경보, 제어 설비를 우리의 기술로 국산화하여 기술의 자주 독립을 이루자는 모토로 1993년 창업 이래 약 17년간 한결같이 원전 계측제어 설비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서 달려온 기업으로서 원자력발전소 감시, 경보, 제어설비 등을 국산화 공급에 성공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선정 2008년 상생 협력 기업 및 2009년 성과 공유 우수 기업으로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공급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주)우리기술은 1998년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고리 원전 1호기 발전소 감시 설비(PMS : Plant Monitoring System)를 순수 국내 기술로 납품하기 시작하여 이후 6개 호기에 납품하였으며, 경보 설비, 지진 감시 설비, 금속 파편 감시 설비, 노심 과냉각 여유도 감시 설비(Sub-Cooled Margin Monitoring System), 발전소 감시&경보 설비(PMAS : Plant Monitoring & Annunciator System) 등의 원전 감시/경보 설비를 납품 완료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또한 원자로 정지 불능 완화 설비, 디지털 삼중화 터빈 보호 시스템, 수처리 제어 설비 등 원전용 제어 설비를 납품하였으며, 자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원전 분야 계측제어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유망 중소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주)우리기술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개발사업단(KNICS)'이 주관한 신규 원전 제어 설비(MMIS) 국산화 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원전 DCS(원전 분산 제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상품명 OPERA-SYSTEM-1400) 신울진원전 1,2호기 MMIS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업



OPERASYSTEM-1400

업(주)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두산중공업(주)와 국내의 원전DCS 장기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수주하는 국내의 모든 신규 원전에 (주)우리기술이 제작·공급하는 DCS가 적용된다.

(주)우리기술은 기존의 감시·경보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 원전 제어 시스템 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에 통합 원전 제어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사와 협력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준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2009년도 하반기 수출산업화사업 신규 지원 과제 공모에 한국전력기술(주)와 당사, BNF테크놀러지가 공동으로 참여한 '해외 가동 원전 발전소 감시 계통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이 채택되어 2009년 9월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우리기술은 고품질의 통합 원전 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원자력 기술 강국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주)우리기술은 국내에 현재 건설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중국 등 세계적인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르는 해외 시장 개척에도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전 DCS 개발 성공을 기반으로 가동 원전의 제어 설비 교체 사업과 유지 보수 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의 새로운 장이 (주)우리기술 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첨단 미래 계측제어 기술의 성장과 발전이 (주)우리기술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